

# 거리두기 더 필요한데...문 여는 체육시설

## “더는 못 버텨”...속속 영업

### 광주 1차 휴업 동참 670곳서 2차 휴업 158곳으로 폭 방역한다곤 하지만...불안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문을 닫았던 체육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그동안 어렵게 버티던 체육시설들이 속속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체육시설들은 이용자들의 신체적 활동이 많아 여는 시설에 비해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영 중단’이 절실하지만, 시설측은 기본 경영은 물론이고 업무량이나 시간 단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

원들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휴업에 동참했던 체육시설은 전체 817곳 가운데 670곳으로 휴업 동참률이 전체의 82%에 달했다. 하지만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셋째 날인 8일 현재, 체육시설 817곳 가운데 158곳인 19%만이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즉 1차 거리두기 기간에는 체육시설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지만, 2차 거리두기가 진행중인 현재는 10곳 가운데 2곳만이 휴업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하모(38)씨는 “문을 닫아도 임대료는 꾸준히 내야하고, 중단기간만큼 전채회원들의 등록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며 “또 헬스장은 개인수업(P/T)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데 강습을 못하니 강사들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다시 열었다”고 말했다.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과 남구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광주시·자치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일부도 다시 문을 열었다.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은 지난 3월22일 문을 닫았다가 6일 운영을 재개했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한달에 9000만원의 공공요금 발생하고, 무급휴가에 들어간 직원들의 생계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게 수영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수영장은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총 51명의 근로자 가운데 41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갔으며, 한 수영강사는 강의 시간이 적어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3월 급여로 고작 1400원을 받았다.

또 이들 수영장은 공공시설이기보다는 대학법인이나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위탁운영이어서 운영 재개가 좀 더 자유로웠다는 분석도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하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탈의실과 샤워장을 운영할 때,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복대장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또 수건 등 공용물품을 지금해서는 안되며, 이용객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오는 19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며, 집합금지 기간 중 운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광주시 남구 자치행정과 직원은 “행정상 문을 닫으라 강제할 수도 없지만 문을 연 체육시설들을 마냥 비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실 업주는 물론 강사들도 휴업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영업을 재개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산구 소비쿠폰 지급 시작 8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미세먼지 저감 시범실증단지 구축사업 본격화

### 3년간 국비 182억원 투입

###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착수

광주지역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민친화적 미세먼지 저감 시범실증단지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민친화적 미세먼지 저감 시범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간 182억원을 지원받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광주 광산구·전

자부품연구원 등과 함께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최근 시범실증단지 후보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업체를 적격성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착수보고를 거쳐 사업수행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광주시 광산구 공단을 포함한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인구 밀집도, 구간별 교통량, 대중교통 이용량 등 다양한 조사·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기

반으로 미세먼지 센서 170개소, Air-Bus bay 10개소, 미세먼지 저감 체험공간 1개소 등 시민친화적 시범실증단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안기석 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친화적 미세먼지 저감 시범실증단지를 구축해 지역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광주시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고, 실외 공기산업용 육성·견인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교육청 18일까지

###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기간

### 분청·지원청 자율 추모행사

전남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분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율적 추모행사를 추진한다.

8일 전남도교육청 따르면 이번 추모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현장 행사보다는 온라인으로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고 교직원들의 자율적 참여 속에 최대한 자분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 슬로건을 ‘기억하겠습니다. 생명존중의 세상, 꽃으로 피어난 아이들’로 정하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번 추모행사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청 본관 외벽에 대형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1층 중앙 현관 로비에 세월호 추모나무를 설치해 직원들이 추모 메시지를 쓴 노란리본을 걸기도 했다.

참사 당일인 16일 오전 9시40분에는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또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현장행사 진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남학생의회, 단위학교 학생회 중심의 사이버 추모행사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병삼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안전과 인권, 인간존중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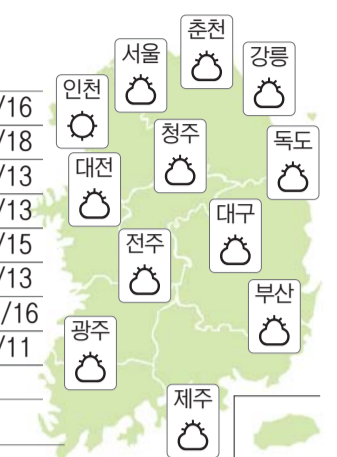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달뜨기 20:26  
해질 19:00 달집 07:01

### 큰 일교차

일부 지역 아침 기온 낮아 쌀쌀하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4/16 | 보성  | 구름많음 | 1/16  |
| 목포 | 흐림   | 4/12 | 순천  | 구름많음 | 5/18  |
| 여수 | 구름많음 | 6/17 | 영광  | 흐림   | 2/13  |
| 나주 | 구름많음 | 1/16 | 진도  | 구름많음 | 5/13  |
| 완도 | 구름많음 | 5/16 | 전주  | 구름많음 | 2/15  |
| 구례 | 구름많음 | 1/17 | 군산  | 구름많음 | 3/13  |
| 강진 | 구름많음 | 2/17 | 남원  | 구름많음 | -1/16 |
| 해남 | 구름많음 | 1/15 | 축산도 | 구름많음 | 6/11  |
| 장성 | 구름많음 | 1/15 |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남부 | 안바다    | 북서~북 0.5~1.0 | 북서~북 0.5     |        |
|      | 면바다(북) | 북~북동 0.5~1.5 | 북~북동 0.5~1.0 |        |
|      | 면바다(남) | 북~북동 0.5~1.5 | 북~북동 0.5~1.0 |        |
| 남해서부 | 안바다    | 북서~북 0.5     | 북서~북 0.5     |        |
|      | 면바다(서) | 북~북동 0.5~1.5 | 북~북동 0.5~1.5 |        |
|      | 면바다(동) | 북~북동 0.5~1.5 | 북~북동 0.5~1.0 |        |

### ◇ 생활지수

|      |    |
|------|----|
| 감기   | 보통 |
| 뇌졸중  | 보통 |
| 미세먼지 | 보통 |

###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 08:12<br>20:30 |
| 여수 |    | 03:45<br>10:01 |
|    |    | 15:58<br>22:28 |

### ◇ 주간 날씨

| 10(금) | 11(토) | 12(일)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
| ☁     | ☁     | ☁     | ☁     | ☁     | ☁     | ☁     |
| 5/17  | 5/15  | 5/19  | 7/17  | 6/21  | 7/21  | 8/22  |

## 호남대, 임상병리학과 신설 등 보건계열 65명 증원

호남대학교가 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로 임상병리학과를 신설하는 등 보건계열학과를 대폭 강화했다.

호남대(총장 박상철)는 임상병리학과를 신설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25명을 선발한다. 또 간호학과 30명, 응급구조학과 10명을 증원하는 등 보건계열학과 신입생을 65명이나 증원했다.

호남대는 임상병리학과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방역 의료현장 등에서 맹활약

하고 있는 임상병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임상병리학과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기술을 교육·연구 개발하고, 임상병리학 전반에 첨단 지식을 갖춘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호남대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간호학과 정원을 30명 늘어난 160명으로 증원하고 응급구조학과도 10명이 증원된 50명을 선발하는 등 7개 보건계열학과가 총 39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북구, 노인·노숙인 등 통합 돌봄 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북구가 오는 12월까지 북구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광주시가 주관한 ‘2020년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공모사업’ 중 노인 분야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돌봄 사업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사

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케어 배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활동가를 양성하고 영양도시락 지원, 소독방역, 주거환경개선 등 어르신들의 재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통합 돌봄 사업이 지역의 돌봄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